# 광주·전남 2월 물가 3%대 중반…과일값 40%대 폭등

## 안정세 기대 깨고 각각 3.4%·3.5% 상승…배 121%·사과 66%↑

## 과일 지수 33년만에 최대 상승…정부 할인지원·수입 확대 등 추진

정부의 물가 안정 정책에 따라 하락세를 보이던 광주·전남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달 만에 다시 3% 중반까지 치솟았다.

특히 과일류가 33년 만에 40%가 넘는 역대 최대 폭 상승률을 보이며 광주·전남 소비자물가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에 정부가 추가 지원금을 통한 지원책을 발표했지만, 물가 잡기에 성공할지는 미지수다.

6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2월 광주·전남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의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각각 114.10과 114.58로 전년 동월 대비 3.4%, 3.5% 상승했다.

광주·전남지역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지난해 8월(3.4%)부터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지난해 10월 3.9%까지 올랐었다.

지속된 고물가로 인해 정부가 과일을 비롯한 농수축산품을 중심으로 수입품 관세 혜택, 각종 지원금을 통한 가격 인하 등 물가 안정 정책을 펼치면서 지난 1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3.1%로 전월 대비 0.4%포인트(p) 하락하는 등 효과를 보는 듯했다.

1월 소비자물가가 하락하면서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경우 2%대가 예상됐지만, 이날 발표된 소비자물가지수는 0.3%p 오른 3.4%로 집계됐다.

특히 수요 대비 공급 부족으로 인해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과일류가 광주·전남지역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지출 목적별로 보면 광주는 과일류가 전년 대비 34.7%, 전남은 44.7% 폭등했다.

특히 설 연휴가 있었던 지난달 광주에서는 대표 제수품목인 배가 121.3% 상승했고, 사과(66.1%↑), 귤(62.1%↑) 등이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전남에서는 귤이 113.4%로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신선식품지수 중 과일가격 흐름을 나타내는 신선과실류 항목에서는 광주가 37.4%, 전남은 48.3% 상승하며 전년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1991년 47.8% 이후 33년만의 최대 상승폭이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비상수급안정대책반을 가동하고, 식량정책실장이 주재하는 점검·대책 회의를 매일 개최해 물가 상승을 견인하는 과일 및 농축산물 수급 동향과 가공식품 물가 상황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과일·채소 등 할인지원 예산도 대폭 늘려 지원 품목을 확대하고 전·평년 대비 30% 이상 가격이 오른 모든 품목을 대상으로 할인율도 최대 40%가 적용되도록 할 방침이다.

3~4월 중 농축산물 납품단가 인하 204억원에 할인지원 230억원까지 모두 434억원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국내 공급이 부족한 과일·채소는 할당관세 등을 활용해 해외 공급을 확대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사과와 대파 등 13개 품목 납품단가 지원 예산을 15억원에서 204억원으로 대폭 확대해 유통업체 판매가격까지 연결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축산물 물가는 안정적이지만 지난해와 올해 초 기상악화로 인해 과일과 시설채소의 물가는 여전히 높다"며 "과일과 시설채소를 중심으로 전방위적 대책을 마련해 국민 체감물가를 낮추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광주은행 '나와(Wa) 별 보러 가자!' 이벤트

## 상품 가입 고객 5000명 경품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오는 6월28일까지 '나와(Wa) 별 보러 가자!'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사진〉

'나와(Wa) 별 보러 가자!'는 광주은행 비대면 채널을 통해 이벤트 대상 상품(6개) 가입 시 상품별 쿠폰 1매, 개인별 최대 6매를 제공하며, 선착순 5000좌가 대상이다.

참여 대상은 최근 6개월(2023년 9월~2024년 2월) 이벤트 대상 상품 미가입 고객이다.

이벤트 대상 상품은 ▲원화적금(가입금액 20만원 이상) ▲원화예금(가입금액 500만원 이상) ▲외화적금(미화 100불 이상) ▲외화예금(미화 1000불 이상) ▲펀드(신규 가입금액 10만원 이상) ▲개인IRP(신규 가입금액 10만원 이상) 등 6개다.

조건을 충족한 고객은 '광주 와(Wa) 뱅크앱'을 통해 ▲스타벅스 카페라떼 Tall 1잔 ▲GS25 편의점 5000원 상품권 ▲맥도날드 맥치킨 세트 중 경품을 선택할 수 있으며, 경품 지급일을 기준으로 정상적으로 계좌를 유지하고 휴대폰메시지 마케팅에 동의한 고객에 한한다.

이벤트에 대한 세부내용은 광주 와(Wa) 뱅크앱, 광주은행 홈페이지(www.kjbank.com), 고객센터(1600-40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변미경 광주은행 디지털금융센터장은 "비대면 채널을 통해 간편한 금융상품 가입을 통해 쉽게 금융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다"며 "광주은행은 앞으로도 고객들의 니즈를 고려해 다양한 이벤트 및 서비스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광주상의 회장이 한전 정상화 하겠다고? 출마 후보 실현·진정성 없는 공약 수두룩

## 태양광 업체 회장 한상원 후보

## "영농형 태양광 통해 일자리 창출"

제 25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두 후보자의 공약을 두고 지역 경제계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6일 광주상의 등에 따르면 오는 20일 치러지는 광주상의 회장 선거에는 김보곤 DK 회장과 한상원 다스코 회장이 출마한다.

두 후보는 이날 광주상의 회원사에 각자의 공약집을 배포하고 비전과 포부를 밝히며 지지를 호소했다.

그러나 이날 공약집이 배포된 이후 공약의 실현 가능성 여부를 비롯해 두 후보자 간 진정성 면에서도 큰 격차가 생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보곤 후보는 ▲회원 중심의 상의 운영 ▲세대와 업종을 아우르는 화합의 장 구현 ▲상의 사무국의 생산적 운영시스템 구축 ▲종합경제단체로의 재탄생 등 4대 주요 공약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4대 주요 공약의 세부 내용으로 일자리총괄본부 신설과 기업지원 통합민원센터 구축, 산단 조성 시 지역 건설업체 참여율 확대, 재정자립기반 강화, 연구기능 강화와 지역 현안에 대한 경제계 입장 적극 개진 등을 언급했다.

김 후보는 "정책과 공약으로 평가를 받고 싶어 수개월 동안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이번 공약을 마련했다"며 "현 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덧붙여 회원사에게 지역 경제와 광주상의를 함께 발전시킬 수 있는 공약을 제시해 우리 기업인들과 함께 추진해 나가고 싶다"고 밝혔다.

반면 지난달 열린 출마 기자회견에서 기아차 광주공장을 광주 군(軍)공항 부지로 확장, 이전하겠다는 공약 발표로 논란을 샀던 한상원 후보는 이날 배포한 공약집에서도 비슷한 논란을 불러왔다.

한 후보는 ▲광주 군공항 부지 미래산업 유치 ▲양대노총 산업평화 선언 ▲영농형 태양광 확대 보급 ▲한국전력 경영 정상화 ▲'RE100' 정책 지원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핵심기구로 격상 등 6대 주요 공약을 내세웠다.

한 후보는 공약집을 통해서도 문제가 됐던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뜻을 고집했다. 또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자세한 설명 없이 영농형 태양광을 통해 창출하겠다는 성의 없는 내용이 전부였다.

특히 영농형 태양광 사업은 한 후보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다스코의 주요 사업이라는 점에서 공약과 이해충돌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후보자는 또 의회와 행정부를 적극 설득해 한전 경영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는데, 한전 재정위기 돌파의 최대 쟁점은 전기요금 인상이라는 점에서 결국 회원사나 시민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공약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 후보는 "지난 2003년부터 상의 의원, 부회장을 역임하면서 광주의 경제 문제와 지역발전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왔다"면서 "그동안 생각해 왔던 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발전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광주상의 한 회원사는 "공약집만으로도 두 후보 간 준비과정과 열정, 비전을 확인해 볼 수 있다"며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만큼 긍정적인, 선의의 경쟁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대기업 건설사 2년새 채무보증액 23.8조 늘어

## 중흥건설 440% 급증…106곳 중 증가율 1위

지난 2년 새 대기업 계열 건설사의 채무보증 규모가 23조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 기업인 중흥건설의 채무보증 증가율은 441%로, 국내 대기업 계열 건설사 중 가장 높았다.

6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에 따르면 81개 대기업집단 중 2021~2023년 건설 계열사를 두고 공사 시행을 위해 발주처와 입주예정자 등에 채무보증을 제공한 31개 그룹 106곳을 조사한 결과, 채무보증이 늘어난 건설사는 38곳으로 집계됐다. 변동이 없는 곳은 12곳, 채무보증이 줄어든 곳은 56곳이었다.

조사 대상 대기업 계열 건설사의 채무보증액은 2년 새 23조8416억원(12.1%) 증가했다.

건설사의 채무보증이 늘었다는 것은 수주 물량 확대와 신규 사업 증가로 해석할 수 있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업이 지연될 경우 부실이 보증 제공자에게 전이될 가능성도 크다는 의미다.

중흥건설의 채무보증은 2021년 말 2566억원에서 2023년 말 1조3870억원으로 440.5% 급증했다. 같은 그룹 건설사인 중흥토건의 채무보증도 8340억원에서 3조6794억원으로 341.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송도랜드마크시티의 채무보증은 1263억원에서 5031억원으로 298.4% 늘었고, 금호건설은 8045억원에서 3조1384억원으로 290.1% 늘었다.

이어 삼환기업(273.8%), 반도건설(242.8%), 태길종합건설(241.5%), SK디앤디(191.1%), KT&G(175.0%), 동아건설산업(132.6%), SM하이플러스(118.5%), 롯데건설(74.7%), 한화(69.8%), 현대건설(52.7%), 두산에너빌리티(45.7%), 태영건설(39.2%), GS건설(37.7%), SK에코플랜트(35.7%) 등의 순으로 채무보증 증가폭이 컸다.

반면 같은 기간 채무보증 규모가 가장 많이 감소한 곳(2023년 말 기준 채무보증이 없는 기업은 제외)은 동원산업으로, 2021년 말 1조7090억원에서 2023년 말 1050억원으로 93.9% 급감했다.

중흥건설그룹이 인수한 대우건설은 중흥건설, 중흥토건과 달리 채무보증이 감소했으며, 자회사인 대우에스티도 채무보증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지난 5일 전남도를 비롯한 전남도내 23개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한 농협중앙회 및 계열사 대표직원 23명이 기념촬영을 갖고 있다.

# 전남농협 고향사랑기부 붐 조성 앞장…전남 23개 시·군에 기부금

## 설 명절·주말 연휴 홍보 캠페인도

농협 전남본부(본부장 박종탁)는 지난 5일 전남 23개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기부를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관내 농협중앙회와 계열사 대표 직원 23명이 모인 이번 행사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2년차를 맞아, 제도 활성화에 적극 동참하고, 지역 균형발전과 농업농촌 활력화를 도모하는 데 힘을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박종탁 본부장과 정재헌 본부장(NH농협은행 전남본부), 정구영 장장(광주공판장), 김기천 장장(나주축산물공판장), 전형욱 지사장(농협사료 전남지사), 차상훈 위원장(농협노조전남본부) 등 23명은 전남지역 23개 지자체에 각각 기부했다.

이번 기부는 기부에 소외되는 지자체가 없도록 했으며, 고향사랑기부금을 통한 ▲지방소멸 위기 완화 ▲지방재정 보완 ▲지역경제 활성화를 염원하는 의미를 담아 진행됐다.

전남농협은 올 초부터 고향사랑기부 활성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설 명절이나 주말 연휴를 이용해 전남 일대 고속버스·여객선터미널 및 기차역, 전통시장, 휴게소, 유명 관광지 등에서 대국민 고향사랑기부 홍보 캠페인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열린 강진청자축제 기간 강진군 범농협 직원들이 축제현장을 찾아 고향사랑기부를 홍보했다. 또 전남농협은 전남도 및 전남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신규 답례품 개발과 기금사업 발굴에도 힘을 보탤 계획이다.

박종탁 본부장은 "고향사랑기부 활성화는 지방소멸 시대의 농업농촌에 대한 존재가치와 농협 정체성을 확립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전남농협은 고향사랑기부에 대한 국민적인 기부행렬이 확산될 수 있도록 붐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비트코인 급등락에 국내 관련주 일제 하락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 급락하자 국내 가상화폐 관련주들도 6일 주식시장에서 일제히 조정을 받았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 지분을 보유한 우리기술투자는 전날보다 720원(-6.42%) 낮은 1만490원에 거래를 마쳤다.

역시 두나무 주주인 한화투자증권은 330원(-6.90%) 내린 4450원을 기록했다.

빗썸 운영사 빗썸코리아 지분을 보유한 위지트도 60원(-5.96%) 내린 946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이밖에 갤럭시아머니트리(-4.09%), 티사이언티픽(-4.44%), 에이티넘인베스트(-3.55%) 등 관련주들이 대거 하락했다.

미국시간으로 5일 비트코인은 사상 최고가인 6만9200달러대를 기록했으나 이후 6만5000달러대까지 하락했다.

이에 따라 세계 최대 비트코인 보유 기업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주가가 21% 급락했다..

비트코인은 지난해 10월 이후 160%, 올해 들어서만 50% 이상 급등하는 등 고공행진을 지속해왔다.

시장에서는 비트코인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과 4월 이후 4만2000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신중론이 엇갈리고 있다. /연합뉴스

###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 |
|---|---|---|
| ↓ | 코스피 | 2641.49(-7.91) |
| ↑ | 코스닥 | 870.67(+4.30) |
| ↓ | 금리 (국고채 3년) | 3.325(-0.024) |
| | 환율 (USD) | 1334.50(0.00) |